

TV時事討論프로그램 參與者の 연령별 敬語法 사용 양상

박혜경* · 권순희**

〈차 례〉

1.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선행 연구 고찰
2. 경어법 사용의 특성
 - (1) 경어법 사용의 규범적 특성
 - (2) 경어법 사용의 사회 심리적 특성
 - (3)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 (4) 연구 방법 및 제한점
3.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어법 사용 실태
 - (1) 어린이(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 (2)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3) 성인 대상 프로그램
4. 경어법 사용 방식 비교 분석
 - (1)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사회자 비교 분석
 - (2)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토론자 비교 분석
 - (3) 토론 상황에서의 경어법 사용 방식
5. 결론

* 군산지곡초등학교

** 전주교육대학교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사회 속에서 다양한 人間關係를 맺으며 더불어 살아간다.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言語는 時代的 산물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시대나 사회구조 및 제도에 따라 변천하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것으로 敬語法¹⁾을 손꼽을 수 있다.

언어가 시대의 소산물이라고 한다면 종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했던 과거의 敬語法 사용과 소위 민주사회라고 하는 횡적인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의 敬語法 사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국어사용법의 체계에 따라 상하관계 면에서 엄격하게 敬語法을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은 상당히 유동적이고 경제적으로 敬語法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려로 학생들의 敬語法 사용 실태를 분석한 한 연구²⁾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윗사람이나 일반 사회인에 대한 敬語法 관념 자체가 사라져가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논하였다. 물론 敬語法 사용이 줄어들에 따라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의 의미인 敬語法 관념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없는 것은 아니다. 이에 올바른 敬語法 사용 지도가 교육 현장에서 예절 교육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급격히 변화되는 현대사회에 와서 인간관계는 더욱 다면화되고 목적을 가진 만남³⁾이

1) 박인권(1992:3)에서는 상하의 계급의식이 강조되는 사회에서는 계급언어나 절대경어가 발달하고 자유와 평등이 제창되는 사회에서는 생활언어 및 사교경어가 발달하기 마련이라고 논한다.

2) 박인권(1992:29)에서는 시내 초·중·고생의 敬語法 사용 실태를 설문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날로 급증되는 외래문화와 외국어의 침투에 국어문법이 혼란케 되고 심지어 국어의 정의적 영역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敬語心理마저 흔들린다면 말의 혼란을 넘어서 社會心理的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논하였다.

3) 현대사회로 오면서 인간적인 정을 나누는 인간관계보다는 비즈니스로 쉽게 만나고 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敬語法에 대한 연구가 당위성의 논의보다는 변화하는 사회에 맞게 사회언어학적 측면에서 敬語法의 사용 양상은 어떠하며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가를 논의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본다. 敬語法 사용이 중요한 전략⁴⁾의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敬語法의 사용이 의사소통 환경에 따라 서로 다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자를 존대 대상으로 하는 相對敬語法의 경우 화자의 나이, 상대에 대한 관점과 예우, 각자의 敬語法 사용 습관, 의사소통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⁵⁾에 초점을 두고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참여자의 敬語法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 연령별로 달라지는 敬語法 사용 양상과 討論 상황에서의 敬語法 사용 전략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학교문법에서의 敬語法 기술이 어떠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社會言語學的 측면에서 敬語法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미 있는 연구이기를 기대해 본다.

(2) 선행 연구 고찰

형태론적 관점에 따른 敬語法 연구는 敬語法을 기술하기 위해 형태에 따라 기준을 세우고 敬語法을 분류한다. 이 방법을 본 연구에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정복(1998)은 그 동안의 敬語法 연구의 한계를 크게 두 가지로 보았다. 첫째, 국어 敬語法 연구가 실제 사용보다는 언어 형식에 지나친 비중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언어 형식에 비중을 둔 연구에서는 敬語法의 기능을 담당하는 형태소를 찾아내고, 형태

어지는 일회적이고 유목적적인 만남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4) 이정복(1998)에서는 이를 敬語法 사용의 기능 중 '전략적인 특성'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장에서 할 것이다.
- 5) 국어의 敬語法 연구는 등급 문제에서도 다양하고, 접근 방법에 따라서도 기술언어학, 사회언어학, 역사언어학, 인류언어학, 심리언어학, 인종언어학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박인권(1992:1 참고)

소들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언어 형식에 비중을 둔 연구에서는 敬語法의 기능이나 사용상의 특성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둘째, 敬語法의 사용에 대한 관심을 보인 경우에도 한정적인 영역에서 敬語法을 연구하였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의 강한 '규범 지향적' 사고 방식 때문에 '규범' 또는 '규칙'에 어긋나 보이는 용법은 처음부터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해 버렸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어 화자들의 많은 敬語法 사용 사례들이 敬語法 요소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예절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간단히 비문으로 처리되어 버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2. 경어법 사용의 특성

(1) 경어법 사용의 규범적 특성

敬語法의 사용은 본질적으로 상대에 대한 예우가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능도 상대에 대한 자기존경의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敬語法 사용은 화자와 청자, 화자의 제3자의 인간관계(신분)나 사회적 관계를 충분히 고려한 데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인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표현이다.⁶⁾

나이가 자기보다 많더라도 촌수가 낮으면 경어를 쓰지 않는다든지 사적인 경우에는 경어를 쓰지 않다가 공적인 자리에는 경어를 쓴다든지, 집안에서는 반말을 쓰다가도 밖에 나가서는 경어를 쓰는 것은 내적 언어에 경어가 없고 다만 외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의 인식에서만 경어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적 품위는 매우 중요하다. 경어는 인간적 품위를 표현한다.(서정수, 1989: 14-16) 결국 경

6) 박인권(1992), 참고.

어는 화자 자신이 人間 關係나 사회적 관계에서 말할 내용을 고려하여 선택·사용하는 언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화자 자신의 사회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敬語法의 社會心理的 작용⁷⁾이란 화자가 발화 상황, 인간 관계 및 사회적 관계 등⁸⁾에 의해 화자에게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는 심리 상태라고 가정한다.

이정복(1998)에서는 敬語法의 사용을 기능과 관련하여 '規範的 特性'⁹⁾을 논의하고 있다. 이것은 대화 참여자들이 나이, 지위, 세대, 성, 親密性 등의 관계에 따라 서로에게 어떤 등급의 敬語法 형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화자들의 공통된 인식이 언어 공동체의 준강제적 말하기 규범으로 작용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따라서 화자는 언어적 상호 작용에서 상대방의 기대 수준에 맞게 敬語法을 사용해야 하며, 그럴 때 대화 참여자 관계가 우호적으로 유지됨은 물론이고 집단 전체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

(2) 경어법 사용의 사회 심리적 특성

敬語法 사용 양상을 살펴보면 敬語法을 사용하는 각 화자의 사회 심리적인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회사원이 직장 상사를 아침에 만나 깎듯이 인사를 하며 “안녕하십니까? 오늘 넥타이가 너무 멋지십니다. 더 젊어 보이세요.”라는 말을 했다고 해 보자.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敬語法의 존대 의식이 강하게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장 상사가 시야에서 멀어지기도 전에 옆에 있는 동료에게 “야, ○○○씨, 오늘 패션

-
- 7) 사회 심리적란 용어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언어를 파악하는 사회언어학이란 용어 안에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 8) 敬語法의 결정 요인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권세(power)와 유대(solidarity)의 범주를 생각한다. 이익섭·채완(2003: 372-377)에서는 敬語法의 결정 요인으로 나이, 직위(위계질서), 향렬, 사회계급, 성별, 배경이라고 보았다.
 - 9) 敬語法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는 敬語法의 '규범적 특성'에 중점을 두어 사회언어학적으로 한계를 지낸다.

정말 죽인다. 촌스럽기 그지없지만.”이라고 속삭였다면 화자가 직장 상사에게 한 인사는 그야말로 그저 인사치레에 불과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경어를 구사하는 심리를 대략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¹⁰⁾

- a. 상대방 존중의 심리
- b. 상대방에 대한 거리감의 심리
- c. 공식적의 의례적인 심리
- d. 위엄, 품위, 경멸, 방어적 심리
- e. 친애의 심리
- f. 상업주의 심리

이외에도 화자의 심리 상황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심리적 작용을 더 다양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¹¹⁾

敬語法 사용의 또 다른 면은 ‘전략적인 특성’이다. 화자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언어공동체의 규범과 다른 방향으로 또는 언어 공동체의 예측과 다른 방향으로 敬語法 사용 방식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경우를 전략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자의 특정한 목적이란 자신의 부탁을 청자가 수용하게 하는 일,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를 청자가 인정하게 하는 일 등 다양하다. 화자는 敬語法 사용 방식의 변화 또는 유표적인 敬語法 형식의 사용을 통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하거나 청자의 사고와 행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자들이 채용하는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이 바로 세부적인 ‘敬語法 사용 전략’인데, 제보자들¹²⁾의 언어적 상호 작용에서는 언어공동체 및 제보자

10) 박인권(1992) 참고

11) 이정복(1998), 앞의 논문

들의 특성과 밀접히 관련되는 敬語法 사용 전략들이 잘 활용되고 있었다.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수혜자 공손 전략 :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상대방으로부터 입은 물질적, 정신적 이익에 대해 고마움을 나타내거나, 그러한 새로운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 나. 지위 불일치 해소 전략 : 대립적 지위 관계에 있는 화자와 청자가 상대방에 대한 대우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관계를 안정적인 상태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 다. 지위 드러내기 전략 :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낮춤으로써 자신의 높은 지위를 드러내거나 강조하고, 결과적으로 청자의 태도 또는 행위의 변화를 유도하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 라. 정체성 바꾸기 전략 : 둘 이상이 신분 질서에 의해 소속된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변화시킴으로써 대화 상황의 변화에 유리한 정체성을 나타내려고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 마. 거리 조정하기 전략 : 화자가 청자에 대한 대우 수준을 변화시키거나 유평적인 敬語法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조정하고자 시도하는 의도나 행위

이 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敬語法 사용 전략은 화자의 목적이나 적용 상황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상별 TV 시사토론프로그램 참여자의 敬語法 사용 실태 분석을 통해 어떤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경어 사용 방식은 어떠한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12) 이정복(1998)에서는 한 교육 부대 장교들의 언어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위 집단의 특성에 따라 화자들의 敬語法 사용이 어떻게 전개되며, 이 때 나타나는 敬語法 사용의 전략적인 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하여 국어 敬語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방법 및 제한점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선정은 방송사 구별 없이 어린이(초등학생) 대상은 KBS 1TV '저요!, 저요!' (2004년 1월 현재 수요일 오후 5시 20분 방송, 20여분 방송), 청소년 대상은 EBS '청소년 원탁토론' (2004년 1월 현재 일요일 오후 7시 40분 방송, 65여분 방송), 마지막으로 성인 대상은 KBS 2TV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4년 1월 현재 일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90여분 방송)로 하였다. 각 방송의 1회분만을 분석하였으며, 각 방송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경어 사용 양상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각 프로그램 방송 날짜는 다음과 같다.

- 어린이 대상 '저요! 저요!' (2004년 1월 14일 방송)
- 청소년 대상 '청소년 원탁 토론' (2003년 11월 16일 방송)
- 성인 대상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3년 9월 28일 방송)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주제¹³⁾는 너무 정책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이한 사회 문제를 다룬 방송분을 분석하였다. 대상별 TV토론프로그램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敬語法 사용의 결정 요인 중 일차적으로는 나이가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敬語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둘째는 TV토론프로그램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대부분은 시청자와 토론 참여자에게 존경 의미가 담긴 경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敬語法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셋째는 TV토론프로그램에 참여한 남녀 성별에 따라 경어 사용에서 어떠한 양상을 보일 것인지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각각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방송시간이 다르나 각기 相對敬語法의

-
- 13) 어린이 대상 : 질투는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
 청소년 대상 : 이성 친구 가능한가
 성인 대상 : 원정 출산, 누구의 책임인가

사용빈도를 백분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방송시간의 차이는 통제 대상이 아님을 가정한다. 또한 각 프로그램의 분석은 전체 참여자간의 相對敬語法 사용 빈도를 결과를 논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는 뒤에 대상별 각 프로그램의 相對敬語法 사용상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논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相對敬語法 빈도를 조사할 때 구문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문이나, 복문이나에 따라서도 빈도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복문을 따지지 않고 단문 상황으로만 보겠다.

본 연구가 더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설문 조사나 질문 방법으로 토론 참여자간의 경어 사용 태도나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텔레비전 토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토론 상황에서의 담화 태도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양상의 분석을 통해 경어 사용을 살펴보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3.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어법 사용 실태

각 방송사의 시사토론 프로그램들의 기본 구성은 처음에 잘 꾸며진 화면으로 나레이터가 토론의 주제를 전달하고, 진행자 한 사람과 다수로 이루어진 패널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며 방청객이 찬반 토론자의 뒷좌석에 자리한다.¹⁴⁾

14) 각 대상별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다른 구성을 보인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자유발언대라 하여 직접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연예인 도우미가 각각 한 명씩 찬반 토론자 옆에 자리하여 토론을 돕는 형태로 진행되며, 성인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패널들의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방청객의 의견을 묻고 듣는 형태로 진행된다.

(1) 어린이(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5시 20분에 20여분 동안 방송하는 KBS 1TV '저요, 저요'에서는 최근 신문, 인터넷 등 언론매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핫 이슈를 주제로 다룬다. 어른들의 시각으로 미처 생각해 낼 수 없는 아이들의 독특하고 순수한, 때로는 날카로운 발언이 거침없이 터져 나온다. 이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는 한 가지 사실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 분석,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 좀더 폭넓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줄 아는 풍토를 습득할 수 있다.

敬語法 사용에서 相對敬語法의 6분법 체계¹⁵⁾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자 모두의 경어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어린이 대상 TV시사프로그램 참여자의 相對敬語法 사용 빈도¹⁶⁾

역할	이름	성별	해라체①	해체②	해요체⑤	합쇼체⑥	합계(백분율)
나레이터	.	남	(40.7) 11	(55.6) 15	.	(3.7) 1	(100) 27
자유 발언대	.	남녀 혼합	.	(100) 19	.	.	(100) 19
사회자	신영일	남	.	(22.0) 30	(26.5) 36	(51.5) 70	(100) 136

15) 현재 相對敬語法은 6등급 체계가 널리 일반화되어 있다. 청자를 가장 낮추어 대하는 해라체부터 반말체(해체), 하계체, 하오체, 해요체, 상대를 가장 공손히 대우하는 합쇼체가 그것이다. 현행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2002)에서는 상대 높임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2개의 비격식체와 4개의 격식체로 구분하여 상대경어법을 설명하고 있다. 즉 해체(반말), 해요체의 비격식체와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하십시오체의 격식체로 나누어 6등급 체계를 따르고 있다. 본고에서도 6등급 체계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대경어법 등급 구분에 대한 논란을 다루는 것이 본고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논외로 하겠다.

16) 각 敬語法 종류 옆 번호는 편의상 相對敬語法의 6단계 체계에 따라 매긴 것이다. 분석에서 '하계체'와 '하오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연예인 도우미	김인남 (개그맨)	남	.	(26.3) 5	(42.1) 8	(31.6) 6	(100) 19
	김수현 (탤런트)	여	.	.	(82.4) 14	(17.6) 3	(100) 17
토론자	박정음	여	.	.	(100) 35	.	(100) 35
	김예인	여	.	.	(100) 11	.	(100) 11
	곽이랑	여	.	.	(100) 22	.	(100) 22
	이아령	여	.	(8.3) 1	(91.7) 11	.	(100) 12
	조신	여	.	.	(100) 11	.	(100) 11
	?	남	.	(20.0) 1	(80.0) 4	.	(100) 5
합계			11	71	152	80	314
전체 빈도율			3.5	22.6	48.4	25.5	100(%)

* 위의()는 각 개인의 빈도율을 말하고, 아래 숫자는 빈도수를 말함.

위 표를 바탕으로 어린이 대상 TV시사토론프로그램 참여자의 相對 敬語法 빈도율을 분석해 보자. 첫 번째로 相對敬語法 중 해요체가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합쇼체가 25.5%, 해체가 22.6%, 해라체가 3.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인(사회자, 연예인 도우미)만이 합쇼체를 사용하였고, 어린이는 합쇼체 사용이 없고 해요체를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사회자의 빈도율을 살펴보면 합쇼체가 51.5%로 가장 많고, 해요체가 26.5%, 해체가 22.0%로 나왔다. 세 번째로 토론 도우미의 빈도율을 보면 남녀 모두 해요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런데 남자인 김인남은 해요체 42.1%, 합쇼체 31.6%로 합쇼체의 사용도 많이 하였음을 할 수 있다. 또한 해체도 26.3%를 사용하였는데 개그맨의 특성상 재치 있는 말을 할 때 해체의 사용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여

자 토론 도우미는 해요체를 82.4%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요체의 사용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의 相對敬語法 사용 양상을 아래 <표 2>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토론자들이 해요체를 97.9%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어린이 대상 TV시사토론프로그램 토론자의 相對敬語法 빈도

역할	이름	성별	해라체①	해체②	해요체⑤	합쇼체⑥	합계(%)
토론자	박정음	여	.	.	(100) 35	.	(100) 35
	김예인	여	.	.	(100) 11	.	(100) 11
	곽이랑	여	.	.	(100) 22	.	(100) 22
	이아령	여	.	(8.3) 1	(91.7) 11	.	(100) 12
	조신	여	.	.	(100) 11	.	(100) 11
	?	남	.	(20.0) 1	(80.0) 4	.	(100) 5
합계			0	2	94	0	96
토론자 빈도율			0.0	2.1	97.9	0.0	100(%)

토론자인 곽이랑 어린이와 박정음 어린이의 1회 발화 내용의 일부를

- 17) TV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敬語法의 사용은 ‘해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해체’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대화 상대자 측면과 대화 내용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타난 대화 방식을 보면, 코미디언과 시청자와의 직접적인 대화 방식이 아니라 코미디언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주된 대화 방식이다. 또한 의사소통 내용도 조크나 농담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격식을 갖추지 않은 비공적인 대화가 주를 이룬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예요. 친구를 질투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생겨서 반성도 되잖아요. 근데 정음이가 절 많이 질투했던 것처럼 저도 많이 질투했었던거ですよ. 5학년 1학기 때 정음이가 우주정보소년단이었어요. 그 때 정음이가 점수가 높아서 조장선거에 나갔거든요. 근데 질투가 나서 다른 애를 찍어버렸어요. 다른 애가 조장이 되었거든요. 근데 정음이에게 두고두고 미안하고 후회됐어요. 그 후로 그 계기로 친해지게 되었어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곽이랑)

제 외모에서 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학년 때부터 좋아한 아이가 있는데 이쁜 아이하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 때 정말 화가 났었거든요. 그 상대방 아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상대 여자가 옆에 있는 이랑이 친구거든요. 근데 되게 많이 미워했거든요. 꼬집기도 했어요.....이하 생략(박정음)

- '질투는 나의 힘: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를 주제로 한 토론내용 중 일부 -

두 어린이 모두 해요체를 사용하였지만 그 사용 빈도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 박정음과 곽이랑 어린이 모두 비슷한 정도의 양으로 말하였다. 그런데 박정음 어린이가 35회, 곽이랑 어린이가 22회로, 박정음 어린이가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곽이랑 어린이는 논지를 전개하는 데 있어 한 문장을 말할 때 비교적 의미가 완성되게 말하였지만, 박정음 어린이는 한 문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부분 부분 끊어서 얘기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결과이다. 두 어린이의 생각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과, 평소 발화 습관이 다른 것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¹⁸⁾ 이외에 해체는 2.1%를 사용했는데 이는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얼버무리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에서는 토론 참여자의 남녀 비율이 고르지 못하였다. 여자

18) 이는 뒤에 논하는 토론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 5명, 남자가 1명 참여하였기 때문에 敬語法 사용 빈도를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여 비교하기 어려웠다.

(2)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40분에 65분 동안 방송하는 EBS ‘청소년 원탁토론’은 딱딱하고 정형화된 토론 프로그램을 거부하고 청소년이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즉 격식이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토론으로 청소년들의 생각과 고민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기성세대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을 이해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1회 방송분을 분석한 相對敬語法 사용 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청소년 대상 TV시사프로그램 참여자의 相對敬語法 사용 빈도

역할	이름	성별	해라체①	해체②	해요체⑤	합쇼체⑥	합계(백분율)
사회자	김진	남	.	(4.5) 6	(28.0) 37	(67.4) 89	(100) 132
	김미균	여	.	.	(48.8) 21	(51.2) 22	(100) 43
토론자 자료화면	.	여 (여러명)	.	.	(100) 7	.	(100) 7
도우미	?(교수)	남	.	.	(15.4) 2	(84.6) 11	(100) 13
토론자	손윤경	여	.	.	(46.2) 24	(53.8) 28	(100) 52
	이유경	여	.	.	(21.3) 10	(78.7) 37	(100) 47
	이가람	여	.	.	(51.0) 26	(49.0) 25	(100) 51
	최'나	여	.	(2.0) 1	(62.0) 31	(36.0) 18	(100) 50

토론자	김다희	여	.	.	(32.3) 10	(67.7) 21	(100) 31
	박중운	남	.	.	(34.4) 22	(65.6) 42	(100) 64
	장영석	남	.	.	(19.2) 5	(80.8) 21	(100) 26
	윤태양	남	.	.	(10.3) 6	(89.7) 52	(100) 58
합계			.	7	201	366	574
전체 빈도율			0.0	1.2	35.0	63.8	100(%)

앞의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분석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相對敬語法 중 합쇼체의 사용이 6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해쇼체가 35.0%를 차지하였다. 토론 도우미 1명을 제외하고 모두다 청소년임을 감안하면 청소년이 합쇼체를 주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사회자의 敬語法 사용 빈도율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합쇼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합쇼체 빈도율을 남녀 각각으로 살펴보면 남자 사회자가 67.4%, 여자 사회자가 51.2%로, 남자 사회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셋째로 토론 도우미는 많은 양의 발화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합쇼체를 84.6%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토론 도우미로는 한 명의 교수가 출연하였고 전체 토론을 평가하는 발화를 하였다. 여기에서 토론 도우미는 토론의 참가자라기보다 전체 토론 내용을 평가하는 평가자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토론 도우미는 평가자의 입장에서 토론 참여자와 시청자를 대상으로 발화하기 때문에 합쇼체를 많이 사용한 것이라고 해석된다.¹⁹⁾

19) 합쇼체는 해쇼체보다 더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말하기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토론자들의 相對敬語法 사용 양상을 아래 <표 4>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표 4> 청소년 대상 TV시사토론프로그램 토론자의 相對敬語法 빈도

역할	이름	성별	해라체①	해체②	해요체⑤	합쇼체⑥	합계(백분율)
토론자	손윤경	여	.	.	(46.2) 24	(53.8) 28	(100) 52
	이유경	여	.	.	(21.3) 10	(78.7) 37	(100) 47
	이가람	여	.	.	(51.0) 26	(49.0) 25	(100) 51
	최선아	여	.	(2.0) 1	(62.0) 31	(36.0) 18	(100) 50
	김다희	여	.	.	(32.3) 10	(67.7) 21	(100) 31
	박중운	남	.	.	(34.4) 22	(65.6) 42	(100) 64
	장영석	남	.	.	(19.2) 5	(80.8) 21	(100) 26
	윤태양	남	.	.	(10.3) 6	(89.7) 52	(100) 58
합계			0	1	134	244	379
토론자 빈도율			0.0	0.3	35.4	64.4	100(%)

<표3>에 나타난 참여자 전체의 빈도율 표와 비교해 보면 <표4>에 나타난 토론자들의 敬語法 사용 양상도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표3>에서 토론 참여자가 사용한 합쇼체는 63.8%, 해요체는 35.0%이고, <표4>에서 토론자가 사용한 합쇼체는 64.4%, 해요체는 35.4%이다. 프로그램 참여자가 거의 모두 청소년이기 때문에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토론자마다 빈도율의 차이는 보이지만 합쇼체가 해요체보다 2배 이상 많이 사용되었다.

각각 토론자의 빈도율을 비교해 보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 토론자들이 남자 토론자들에 비해 해요체를 많이 사용하

고, 남자 토론자들은 상대적으로 합쇼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 그런데 여자 토론자 중 이유경과 김다희는 합쇼체를 각각 78.7%, 67.7% 사용하였다. 다른 여자 토론자들에 비해 합쇼체를 두드러지게 많이 사용한 경우이다. 또한 여자 토론자 중 손윤경과 이가람은 해요체와 합쇼체를 거의 비슷하게 사용했고, 최선아는 해요체를 62.0%, 합쇼체 36.0% 사용하여 전체 빈도율과 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남자 토론자들은 모두 합쇼체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박중운은 다른 남자 토론자들에 비해 해요체(34.4%)를 많이 사용하였다. 장영석과 윤태영은 각기 합쇼체를 80.8%, 89.7% 사용하여 압도적으로 합쇼체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 생략)... 제 친구 말대로 이성 친구 간에는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정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사이는 감정이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친구처럼 이성 친구와의 우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비록 우정으로 시작하였다 하여도 남녀의 사랑으로 발전하거나 극단적으로 남남으로 돌아선다고 합니다. 과연 이성간의 우정, 불가능한 걸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정이 어떻게 다른지, 이성친구와 동성친구의 차이점은 어느 것이 있는지, 이성 친구와의 장애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손윤경의 기조발제 중)

이성간의 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만 동물에게 없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경우에는 이성을 대할 때 교미의 관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동물들의 세계에 이성간의 우정이 존재한다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에게만 감정을 조절해주는 이성이라는 조절장치가 있기 때문에 비록 남녀간이라 하더라도 그 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은 남녀간 우정이 가능하고 저는 그것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경)

이성친구와 애인의 다른 점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다른 점보다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이는 스킨십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봅니다. 애인이랑 손잡고 뽀뽀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성 친구와 뽀뽀할 수 있나요? 전 못합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최선아)

최선아 토론자의 의견과 다소 견해를 달리하고 싶습니다. 최선아 토론자께서 신체적인 차이가 결국 사랑으로 발전할 계기가 있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여자동생이 없지만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는 분들이 있는 남자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자동생이나 누나가 한 방에 함께 있어도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우정이라면 다소 신체적인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성으로 극복해내고 영향을 받지 않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윤태양)

-이성간 우정 가능성을 주제로 한 토론 내용 중 일부 -

손윤경은 해요체와 합쇼체를 반반 정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유경과 윤태양은 1회 발화내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합쇼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선아와 윤태양을 비교해 보면 같은 확인용 질문(하잖아요?, 하셨습니까?)을 할 때 최선아는 해요체를, 윤태양은 합쇼체를 사용하여 서로 달랐다. 그리고 토론의 시작에서는 합쇼체의 사용이 많았는데 점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토론의 열기가 가열될수록 해요체의 사용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상으로 청소년 대상 TV토론프로그램 토론자 간의 敬語法 사용을 비교하며 살펴보았다. 남녀간 해요체와 합쇼체의 사용 빈도가 다른데 남자는 ‘합쇼체’를 여자는 ‘해요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성별이라도 토론자마다 해요체와 합쇼체의 상대적인 사용 빈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3) 성인 대상 프로그램

매주 일요일 오후 11시 10분부터 약 90분간 방송하는 KBS 2TV

‘100인 토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생활 속의 문제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시청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바람직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 누구나 배심원으로 참여하거나 인터넷 혹은 전화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아래 <표 5>를 통해 성인 대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敬語法 사용 빈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성인 대상 TV시사프로그램 참여자의 相對敬語法 사용 빈도

역할	이름	성별	해라체①	해체②	해요체⑤	합쇼체⑥	합계(백분율)
나레이터	.	남	(100) 6	.	.	.	(100) 6
사회자	김주환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남	.	(0.6) 1	(17.0) 29	(82.5) 141	(100) 171
객석 토론자	.	남 (3명)	.	.	(41.0) 16	(59.0) 23	(100) 39
	.	여 (3명)	.	.	(25.0) 10	(75.0) 30	(100) 40
토론자	유인경 (경향신문 기자)	여	.	(4.3) 4	(66.3) 61	(29.3) 27	(100) 92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남	.	(1.3) 1	(55.1) 43	(43.6) 34	(100) 78
	최창호 (사회심리 전문가)	남	.	(2.4) 2	(49.4) 42	(48.2) 41	(100) 85
	김병준 (변호사)	남	.	(3.1) 3	(20.6) 20	(76.3) 74	(100) 97
합계			6	11	221	370	608
전체 빈도율			1.0	1.8	36.3	60.9	100(%)

첫째, 相對敬語法 중 합쇼체가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해요체가 36.3%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

램과 비슷한 결과로 주목할 만하다. 그밖에 해체가 1.8%, 해라체가 1.0%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사회자의 빈도율을 살펴보면 합쇼체가 82.5%, 해요체가 17.0%, 해체가 0.6%로 합쇼체의 사용 빈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객석 토론자의 빈도율을 보면 남자 토론자의 경우 합쇼체가 59.0%, 해요체가 41.0%였고, 여성의 경우 합쇼체가 75.0%, 해요체가 25.0%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합쇼체를 많이 사용한 것이다. 객석 토론자는 학생, 기업대표, 작가, 부부 등 다양하게 참여하였는데 토론자마다 합쇼체와 해요체의 사용 양상이 각기 달랐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입대를 앞둔 남학생은 약간 흥분하여 정확한 논지 없이 중언부언 말하였는데 해요체를 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본 토론 주제와 관련한 글을 쓰고 그에 대해 연구한 여성 작가는 실례를 들어 근거를 제시하면서 논지를 분명하게 말하였고 합쇼체를 대부분 사용하였다.

토론자간의 相對敬語法 사용 빈도는 다음과 같다.

<표 6> 성인 대상 TV시사토론프로그램 토론자의 상대敬語法 빈도

역할	이름	성별	해라체①	해체②	해요체⑤	합쇼체⑥	합계(백분율)
토론자	유인경 (경향신문 기자)	여	.	(4.3) 4	(66.3) 61	(29.3) 27	(100) 92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남	.	(1.3) 1	(55.1) 43	(43.6) 34	(100) 78
	최창호 (사회심리 전문가)	남	.	(2.4) 2	(49.4) 42	(48.2) 41	(100) 85
	김병준 (변호사)	남	.	(3.1) 3	(20.6) 20	(76.3) 74	(100) 97
합계			0	10	166	176	352
전체 빈도율			0.0	2.8	47.2	50.0	100(%)

〈표 6〉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역시 합쇼체의 비율이 높게 나왔지만, 전체 토론 참여자 분석 결과와 다른 양상을 띤다. 전체 토론 참여자 결과는 합쇼체 60.9%, 해요체 36.3%로 합쇼체가 해요체보다 두 배 정도 많았는데 토론자 결과에서는 합쇼체 50.0%, 해요체 42.7%로 상대적으로 해요체의 사용이 많아 합쇼체와 해요체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정도라는 것이다. 이는 토론을 이끄는 중에 발화양이 많았던 사회자의 경어 사용이 대부분 합쇼체였기 때문에 전체 참여자의 분석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뒤에서도 논하겠지만 토론자의 분석 결과만 보면 상당히 해요체를 많이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오히려 평소 말하기 습관에 따라 다른 사용 양상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다. 구체적인 발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여기 조기유학간 아이들 너무 많은데, 다시 방학 때마다 와서 뭐하냐, 과외해요. 그리고 현지에도 케나다, 미국, 영국에 한국 학생들을 위한 과외를 하고 있어요. 여기보다 더 고액과외해요. 근데 그걸 왜 돈 때문에 간다. 그리고 원정출산 가는 사람들 돈걱정하는 사람들이냐구요. 솔직히 다 수천만 원씩, 적게는 3천, 크게는 1억씩 들어서 가고 특권층이라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내가 아껴서 교육비 때문에 간다. 이걸 말이 안 되구요.(유인경 기자)

차라리 이민을 가시면 그 나라 국민으로써 그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그 나라 권리를 하죠. 그런데 이중국적으로 여기에서 원정출산만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의료보험도 받고 뭐도 하면서 나중에 자기 유리할때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거구요.(유인경 기자)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외국이라고는 13년 전에 직장 다닐때 관광 여행 한번 다녀온 것이 전부이고 우리 집사람이랑 4살된 우리 아들 역시 해외라고는 제주도밖에 다녀온 적이 없는 한국 토박이입니다. 우리 아들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라면서도 사투리를 사용해서 친구들한테 놀림감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는 직업윤리상 아무리 흉악한 범죄 행위라도 변호를 해줘야 할 직업상 의무가 있습니다.(김병준 변호사)

우리 헌법 제 1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갖는다고 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내에서의 거주 이전의 자유, 국외 이주와 해외 여행의 자유, 국적 이탈의 자유까지 포함됩니다. 물론 이러한 권리도 국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공공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본질적인 면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김병준 변호사)

- '제44회 원정출산, 누구의 책임인가?' 토론 내용 중 일부 -

유인경 토론자는 타 프로그램에서도 해요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김병준 토론자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합쇼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병준 토론자는 말할 내용을 모두 준비한 듯이 대본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준비된 말하기, 확신있는 말하기에서 합쇼체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4. 경어법 사용 방식 비교 분석

앞에서 각 프로그램의 전체 참여자간, 토론자간 경어 사용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이번에는 프로그램 간 사회자와 토론자의 경어 사용 양상을 서로 비교 분석하여 보자.

(1)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사회자 비교 분석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청소년 남자, 여자로 구성되었고, 어린이,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사회자는 성인 남자로 구성되었다.

각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사용한 敬語法의 빈도율은 다음과 같다.

〈표 7〉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사회자의 相對敬語法 빈도율

역할	대상	성별	해체②	해요체⑤	합쇼체⑥
사회자	어린이	남	22.1	26.5	51.5
	청소년	남, 여	3.4	33.1	63.4
	성인	남	0.6	17.0	82.5

위 〈표 7〉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회자의 敬語法 빈도율은 어린이, 청소년, 성인대상 모두 합쇼체가 높았다. 사회자는 우선적으로 시청자를 고려하고 프로그램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하므로 상당히 격식적인 말하기를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합쇼체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합쇼체를 사용한 비율이 성인 대상 사회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소년 대상, 마지막으로 어린이 대상 사회자 순으로 높았다. 즉, 합쇼체의 사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순으로 많이 사용한 것이다. 이는 대상에 따라 말하기를 달리 해야 하는데 실제로 대상에 따라 경어 사용을 달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자는 토론자에 비해 미리 잘 정선되고 조직된 말하기를 한다. 이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알맞은 경어를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토론자 비교 분석

토론자는 모두 각 프로그램의 대상에 해당되는 연령층과 남녀혼합으로 구성되었다. 각 프로그램에서 토론자가 사용한 敬語法의 빈도율은 다음과 같다.

〈표 8〉 대상별 TV시사토론프로그램 토론자의 相對敬語法 빈도율

대상	해체②	해요체⑤	합쇼체⑥
어린이	2.1	97.9	0.0
청소년	0.3	35.4	64.4
성인	2.8	47.2	50.0

〈표 8〉의 빈도율을 보면, 어린이 토론자들은 해요체를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였고, 청소년과 성인 토론자들은 합쇼체를 많이 사용하였다. 박영순(1976: 59)은 세대별로 敬語法의 사용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敬語法의 습득 순서가 있고 敬語法의 사용은 일생을 통해 단계적으로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위의 결과는 그러한 연구를 어느 정도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어 사용의 다양한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고 빈도율 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TV시사토론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은 다른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어린이 대상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토론자들이 쟁점을 중심으로 상호간에 활발한 토론을 한다거나 상대 토론자를 설득하기 위해 말한다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시청자, 방청객, 사회자에게 부담없이 말한다. 이러한 진행상의 특징이 합쇼체보다 해요체를 더 많이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²⁰⁾. 공식적인 말하기보다는 비공식적인 말하기에 가까운 프로그램의 진행²¹⁾이 敬語法 사용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해석된다.

또한 성인 토론자들의 敬語法 사용 빈도율 결과에서는 해요체와 합쇼체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 그리고 청소년 토론자들은 합쇼체를 해요체보다 두 배 정도 이상 사용했다.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공식적 말하기(격식적 말하기)에서 합쇼체를 더 많이 쓸 것이라는 가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대별 또는 대상에 따라 경어 사용을 달리하는

20) 토론자들은 모두 사회자에게 시선을 주며 말하였다.

21) 이를 매체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아 논의할 수도 있겠다.

측면보다는 토론의 상황, 분위기, 전개방식, 말하는 사람의 평소 경어 사용 습관, 토론하는 말하기의 요인들 즉, 논지에 대한 확신, 주저와 망설임, 동조를 얻으려는 경향 등에 따라 경어 사용 양상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의 토론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 방식에서 논하고자 한다.

(3) 토론 상황에서의 경어법 사용 방식

앞에서 각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와 토론에 참여한 사회자와 토론자의 경어 사용을 상대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다양한 사회적 변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敬語法은 사회언어학적으로 다양한 사회적 변인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경어를 사용하는 말하기 상황이 큰 영향을 줌을 알았다. 효과적인 토론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 방식을 정리하여 기술해 보겠다. 이는 곧 사회언어학적으로 경어를 연구함에 있어 의미있는 일이다.

분석 대상은 TV시사토론프로그램으로 시청자를 고려하는 상당히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말하기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말하기에서는 존대 의미가 큰 합쇼체의 경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각 프로그램의 사회자 경어 사용 분석 결과에서 합쇼체의 사용이 높게 나온 것은 이를 증명한다.

또한 토론은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력있게 이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즉 설득적인 말하기이다. 설득적인 말하기에서는 주장하는 사람의 확신에 찬 말하기, 근거가 확실한 말하기, 의미 전달을 확실히 하는 등의 말하기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말하기 요소가 합쇼체를 주로 사용하게 만든다. 학교 토론이나 회의 시간에 ‘저는 ~라고 생각합니다. ~이기 때문입니다. ~ 합니다. ~습니다.’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합쇼체를 많이 사용한다. 미리 말할 내용을 준비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렇게 합쇼체를 사용하여 말하는 것을 학교에서 훈련시킨다. 그래서 꽤 훈련이 잘 된 학생의 경우 합쇼체를 사용하여 발

표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다.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토론 처음 부분에서 기초 발언을 할 때나 각자 자신의 주장을 미리 준비하여 말할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말할 때도 합쇼체를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토론자 분석에서 합쇼체 말하기의 훈련이 잘 된 학생들은 토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당히 합쇼체를 잘 사용하였다.

앞의 TV시사토론프로그램 토론자의 경어 사용이 합쇼체와 더불어 해요체의 사용도 많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쟁점을 중심으로 찬반토론자가 서로의 의견을 반박하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는 등 토론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합쇼체의 사용보다는 해요체의 사용이 빈번하게 출현하였다. 한 토론자가 말하는 중간에 다른 토론자가 말을 가로채거나 말을 다 마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릴 때 해요체의 사용도 불가피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이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라는 듯 동조를 구할 때에는 '-했죠, -해요, 그렇지요'를 사용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해요체의 사용도 토론 상황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며, 이는 곧 설득의 요소에서 토론자의 정서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대상에 따라 경어의 사용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아래 TV시사토론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어 사용 실태 분석을 각각도로 시도해 보았다. 그 결과 TV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만은 경어의 사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²²⁾

개인의 언어 사용에서 敬語法의 양상을 보려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연령을 근거로 하여 집단의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22) 각 프로그램 분석 결과를 논할 때, 그리고 앞의 토론 상황에서의 경어 사용 방식에 대해 논하면서 그 내용을 다 언급하였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본고는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경어 사용에 대한 연구는 경어가 사용되는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 및 인간 관계를 고려하는 언어 사용 양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 주체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敬語法에 대한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집단과의 관련성 속에서 사용 주체를 고려하는 敬語法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말하는 내용의 표현에 초점을 두어 언어 사용을 연구 하느냐 또는 화자가 구성해 가는 사회적 인간 관계에 초점²³⁾을 두어 언어 사용을 연구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의사 소통의 상황과 언중을 고려하는 사회적인 敬語法 사용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敬語法 연구 및 교육이 아니라, 사회성을 고려한 敬語法 연구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敬語法과 격식성(공식성이나 비공식성 등)의 상관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이다.

초등학생들이 敬語法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공식적인 대화 상황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敬語法은 화자가 대화 상대자나 대화 상황, 문맥 등에 대해 지니는 화자의 발화 태도와 관련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공식적인 대화 상황이 주어진다하더라도 발화 태도를 비형식적이고 비공식적인 경우로 선택하여 발화하기도 한다. 우리가 보통 버릇없다거나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치부하게 되는 경우, 또는 어리니까 애교로 봐준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 ‘애답다’고 이해하는 경우 등도 이러한 경우에 속할 수 있다. 반면에 청소년의 경우는 공식적인 대화 상황을 융통성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발화 태도를 보인다. 그 결과 敬語法의 사용에서 성인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낸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 또 말하기의 성숙도에 따라서 敬語法을 인식하고 사

23) 우리말에서 어미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문법 요소라고 보는 시각도 여기에 속한다.

용하는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공식, 비공식적 말하기, 사회적 지위, 태도 등에 따라 敬語法 사용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의 이론이었다. 이 접근 방법에 더하여 본고에서는 말하기의 발달 단계 및 성숙도에 따라서 敬語法 사용이 달라짐을 논의할 수 있다. 어린이(초등학생) 단계는 타인을 고려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발화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자기 중심적 사고로 타인과의 관계보다는 화제에 초점을 두는 발화를 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단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성인 단계에서는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사회언어학적으로 경어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러한 시도를 교육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학교문법에서의 敬語法 기술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敬語法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6. 2. 25. 투고되었으며, 2006. 3. 13. 심사가 시작되어 2005. 3. 25.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규선(1997), 국어의 敬語法 연구, 국학자료집.
- 강내원(2001),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비판적 시청과 미디어교육적 함의: 프로그램 구성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8집,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권순희(2002), '청자를 고려한 대화방법', 화법연구4, 한국화법학회.
- 김태엽(1998), '국어높임법의 체계-청자높임법의 실현매체를 중심으로', 어문학 통권 제64호, 한국어문학회.
- 김혜숙(2002), '서평: 이정복 『국어敬語法과 사회언어학』', 월인, 사회언어학 제10권 2호, 한국 사회언어학회.
- 박영순(1976), '국어敬語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국문학 제72·73권, 국어국문학회.
- 박안권(1992), '국어敬語法 연구(1)', 어문학 교육 제14집, 한국어문교육학회.
- 서덕현(1996), 敬語法과 국어교육 연구, 국학자료원.
- 이익섭·채완(2003),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이정복(1996), '국어敬語法의 말 단계 변동 현상', 사회언어학 제4권 1호, 한국사회언어학회.
- 이정복(1998), 국어敬語法 사용의 전략적 특성,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 John Dewey 저, 박철홍 역(2005), 아동과 교육과정·경험과 교육, 문음사.

<초록>

TV時事討論프로그램 參與者의 연령별
敬語法 사용 양상

박혜경 · 권순희

대상에 따라 경어의 사용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아래 TV시사토론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을 상대로 한 TV시사토론프로그램에서 사회자와 토론자의 경어 사용 양상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어린이 대상,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시사프로그램에서 사회자들이 공통적으로 합쇼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론 참여자의 경어법 사용 양상은 사회자들의 경어법 사용 양상과 달라서 흥미롭다. 토론 참여자들은 어린이의 경우 97.9%가 해요체를 썼고, 청소년의 경우 64.4%가 합쇼체를, 성인의 경우는 50%가 합쇼체를 썼고 47.2%가 해요체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자와 토론자들이 사용하는 경어법의 빈도가 달랐고 연령에 따라서도 경어법의 사용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개인의 언어 사용에서 敬語法의 양상을 보려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연령을 근거로 하여 집단의 언어 사용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본고는 의의가 있는 연구이다.

경어 사용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 상황과 사회적 관계 및 인간 관계를 고려하고 사용하는 언어 사용 양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자 주체 입장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敬語法에 대한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집단과의 관련성 속에서 사용 주체를 고려하는 敬語法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화자가 말하는 내용의 표현에 초점을 두어 언어 사용을 연구 하느냐 또는 화자가 구성해 가는 사회적 인간 관계에 초점을 두어 언어 사용을 연구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핵심어】 TV시사토론프로그램, 참여자, 사회자, 토론자, 敬語法 사용, 인간 관계, 언어 사용

<Abstract>

A Study on Honorific Expression Usage in Television Current Debate Programs

Park, He-kyoung · Kwon, Soon-hee

Honorific expression usages of participants in television current debate programs were analyzed in the assumption that participants use different honorific expression according to the age. From the survey of television current debate programs for children, youths, and adults, it was found that chairmen and debaters used different honorific expressions. All the chairmen use "HAPSYO" style in high frequency. On the contrary, the frequency and style of honorific expression usage of debaters were different from those of chairmen. Child debaters use "HAEYO" style in a frequency of 97.9%, young debaters use "HAPSYO" style in a frequency of 64.4%, and adult debaters use "HAPSYO" style in a frequency of 50% and "HAEYO" style in a frequency of 47.2%. These results show that the style of honorific expression usage of chairmen is different from that of debaters and that the styles of honorific expression usage are different among children, youths, and adults. Current study analyzing honorific expression usage on the basis of ages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that have analyzed it in the point of an individual language usage. The study of honorific expression usage should discuss the usage of language with due regard to social situation and relationship as well as human relationship. The paradigm of studying honorific expression usage should change from language user itself to language user in relation with social group.

[Key words] Television current debate programs, participant, chairman, debater, honorific expression usage, human relationship, language usage